

■ 도, '제주의향 2단계 개발사업' 재개... 환경영향평가 공고

“해양 부지 4만여㎡ 매립해야”

당초 1900억 투입 2025년 완공 계획... 규모 대폭 축소
2024-2027년 650억 투입해 외곽·계류시설 조성 계획
도 “제주항 선석 부족 해결·원활한 화물처리 기대돼”

제주의향 2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제주항 인근 해양 부지 4만여㎡ 면적을 매립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향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지난 24일 공고했다. 이어 내달 9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업 내용을 보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비 약 650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일원 4만1671㎡의 부지를 매립하고 외곽 시설·계류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매립 부지 중 2만 7129㎡는 잡화부두, 1만4542㎡는 친수시설을 설치하고 외곽으로 446㎡의 호안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의향 2단계 사업을

통해 제주항 선박대형화에 따른 선석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관광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제주의향 화물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원활한 화물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지난 8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의향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준비서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사업 시행에 따른 인근 어업권 영향을 중점평가 항목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상에 제시된 대안 설정이 건설기술 비교 위주로 돼 있어, 환경에 끼칠 영향과 대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제주도의 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주도가 2016년부터 추진한 제주의향 2단계 개발사업은 당초 사업비 약 1900억원을 투입, 제주의향 동쪽으로 2만t급 화물선 2척이 정박할 수 있는 화물부두와 해경 경비함 12척이 정박할 수 있는 해경부두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이였다. 당초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했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제주의향에서 화북동을 연결하는 220m 구간 교량 설치 계획까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제주의향에 대한 수요예측 재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착수 조건으로 '국제크루즈 연간 260척 입항'을 제시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무기한 표류해 왔다. 이에 제주도는 선석 1개를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대폭 축소, 변경했다. 사드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크루즈 입항 조건 충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제주항 포화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문제도 고려한 것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한라산과 매화 25일 서귀포시 칠십리공원에서 바라 본 한라산이 매화꽃과 어우러져 한폭의 그림을 연출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사고다발구간 평화로 무수천 사가로 개선

자치경찰위·유관기관 현장 조사...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노면 보강 등

대형 교통사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평화로 무수천 사가로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와 노면 보강 등 제발 방지 대책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8일 평화로 9중 연쇄 충돌사고와 관련해 유관기관 합동 현장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제주도 교통부서,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사고 발생 경

위와 문제점에 대해 기관별 추진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현장 협의회를 통해 도로관리부서인 제주도 도로관리과는 내리막 구간 경고문구(대형 발광형 LED) 표지판 설치, 미끄럼방지 시설인 그루빙 흙파기 추가 설치 및 노면 보강, 긴급제동시설 및 과속 카메라 추가 설치하기로 했으며 제주경찰청은 무수천 사가로 교통혼잡 발생 시 경찰관을 배치해 교통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자치경찰단은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전까지 이동식 과속단속 부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교통안전공단은 도내 전 중형화물 자동차 이상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전수검사 및 교육실시 등을 추진해 각 기관별로 빠른 시일 내 개선에 나선다.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교통사고 제발 방지를 위해 과감한 시설예산 투자와 함께 홍보·교육 등을 통해 안전운행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영기자

제주 '중환자용 특별구급대' 첫 도입

도소방본부 올해 이도·대신119센터 배치 계획

119구급차에 의사가 탑승해 상태 악화시 직접 치료하며 이송하는 '중환자용 특별구급대'가 제주에 처음 도입된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안에 중환자용 특별구급대가 제주소방서 이도119센터와 서귀포소방서 대신119센터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중환자용 특별구급대는 ▷심정지 환자 ▷중증 외상 환자 ▷심혈관질환 환자 ▷뇌혈관질환 환자 등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전문 처치와 병원 간 이송을 전담한다.

2019년부터 심정지, 심인성 흉통, 중증외상, 아나필락시스, 응급분만

환자를 상대로 운영 중인 특별구급대에 병원 간 이송 기능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병원에서 응급환자 이송을 119상황실에 요청하면 중환자용 특별구급대가 출동하는 방식이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종합병원 간 환자 이송 인원은 373명으로 연 평균 124명에 이른다.

중환자용 특별구급대는 전문 의료 장비를 갖춘 다목적 중형구급차를 운용하며 의사가 탑승해 환자 위급 상황 발생시 전문 처치를 수행한다. 중환자용 특별구급대에는 의사와 함께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면허·자격이 있는 대원 2명이 탑승한다. 이상민기자

“천연기념물 보호위해

마라도 길고양이 반출”

마라도에 찾아오는 천연기념물 뽕식오리 보호를 위해 고양이 반출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27일부터 고양이 반출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반출 결정은 지난 17일 세계유산본부가 문화재청, 동물보호단체, 수의사, 교수 등 전문가와 함께 마라도를 방문해 길고양이 반출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이뤄진 후속조치다. 당시 대부분 참석자는 뽕식오리 도래가 이미 시작됨에 따라 고양이를 즉시 반출하는데 동의한 바 있다.

한편 모니터링 결과 마라도엔 60~70마리의 고양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태윤기자

과밀 특수학급 기간제 특수교사 배치

도교육청 초등 13명 등 32명... 특수학급 19개 신증설

제주도교육청이 과밀 특수학급 학생들의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을 추가로 배치한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특수교사 지원은 교육부 승인 아래 공립학교 수요조사를 거쳐 이뤄졌다. 배치 인원은 유치원 4명, 초등학교 13명, 중학교 3명, 고등학교 4명, 특수학교 8명 등 총 32명으로 근무 기간은 오는 3월부터 내년 2

월까지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2023학년도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해 19개 특수학급을 신증설했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3개, 초등학교 8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 특수학교 3개다.

2022년 4월 1일 기준 도내 과밀 특수학급은 전체 150학급 중에서 44학급(전체의 29.3%)로 나타났다. 과밀 기준 1명을 초과한 경우가 17

학급, 2명 초과가 10학급으로 가장 많았다. 3~4명을 초과한 경우는 각각 6학급이었다. 올해 새 학기를 앞두고 실시한 3월 학급 편성 결과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유치원에서 전공과정까지 1900명이 넘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과밀 특수학급에 특수교사를 추가 배치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한 학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특수학급 신증설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탐라불교문화대학 제22기 입교안내

1. 대학개설 취지와 목적

본 대학은 부처님법으로 자신과 가정과 이웃과 사회를 복되게 하고 자유롭고 도의적인 정신문화 개발로 사람들로 하여금 평안하고 원만한 삶을 스스로 누리도록 교육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입교신청과 전형

- 1) 입교자격: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올바른 신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
- 2) 신청기간: 2023년 3월 20일까지(선착순에 한함)
- 3) 제출서류: 입교신청서(본 대학 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3×4)
- 4) 수업료: 1년 50만원(교재비 포함)

탐라불교문화대학 학장 소임 위촉에 대하여

지금의 세태는 과학기술에 의한 산업화, 상품화 시대이므로 이렇게 복잡한 시대에 알맞게 불타의 지혜와 자비정신을 펼치기 위해서는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실제적 실현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독실하게 불심으로 살아온 불자님의 수고와 정진이 요구되므로 2023년 2월 15일 현산 김승하 불자님에게 본 대학 학장 소임을 위촉하였습니다. 앞으로 불자님들의 이해 협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 교육

- 1) 교육기간: 1년 과정 (2023년 3월 ~ 2024년 2월까지)
- 2) 교육시간: 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9시 까지
- 3) 교육학기
 - ① 제1 신양입문기(3월 ~ 5월): 불교의 신앙생활, 예절, 교리공부
 - ② 제2 신행수학기(6월 ~ 8월): 신행실수(信行實修), 불교의 역사
 - ③ 제3 신행연수기(9월 ~ 11월): 기도, 목경, 주력, 참선에 대한 이론과 실제
 - ④ 제4 정법회향기(12월 ~ 2월): 불교윤리, 불교문화, 불교포교, 불교와 사회

4. 개강일시 및 장소

○ 개강일시: 2023년 3월 21일(화요일) 야간반 오후 7시
○ 장 소: 불교조계종 광범사 교육관

5. 접수처

제주시 아연로 422 (오동동) 광범사 종무소
☎ (064)756-5083, 756-5084 / FAX (064)756-5082

조계종 제주불교협회
탐라불교문화대학 학장 玄山 김 승 하
탐라불교문화대학 회주 중 원

탐라불교문화대학 회주 중 원 합장